

최근 지역문화예술계 중 유일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병을 대비하고 있는 단체는 문화재단.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를 대비하는 모양새다. 광주문인협회와 전남문인협회는 지난 5월 19일 '전남광주특별시문인협회' 통합 협약을 체결하고, 양 단체의 통합 절차와 운영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진보문화단체인 지역 작가회의는 그동안 명칭을 광주전남작가회의로 분리하지 않고 운영해오며 따라 별다른 영향 없이 존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통합 이후에 대한 문제적 시각이 당면과제로 도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처럼 문화예술계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를 의식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계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등의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관련 말들만 무성하다. 그러다보니 통합특별시 출범이 한달 후로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미술계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미처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한달을 앞두고 미술계 여론을 정리, 소개한다.

문화예술 위상 높이기 위한 '현안' 논의 서둘러야

한달 후면 통합특별시 체제가 본격 작동된다. 행정은 통합됐으니 문화예술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간헐적으로 통합특별시 이후 문화예술계에 대한 의견이 간간히 개진되고는 있지만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개별적 의견들만 난무하는 듯한 형국이다.

광주와 전남이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체제로 전환되지만 미술계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움직임은 거의 부재하다시피하다. 통합특별시장 등을 뽑을 6·3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미술계 풍향계는 멈춰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억측들만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구체적인 거머져 찾을 수 없

는 상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광주전남 최대 조직을 자랑하는 광주미술협회를 망라한 미술계가 가이드라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쓴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광주미술협회와 전남미술협회의 조직체제는 물론이고,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 간 관계 설정 등에 관한 기준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항간에는 광주시립미술관이 현대미술을 주로 다루고, 전남도립미술관이 남종화를 위주로 한 한국화와 문인화 등 근현대를 망라한 전통미술을 다루는 것으로 역할을 달리해 교통정리를 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미술관을 없

미술계 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뮤지엄 등 가이드라인 시급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공론의 장' 통해 대안 마련 목소리 행정보다 먼저 앞서 머리맞대 도출 정책방향 정립 제시를

앨 수도 없기 때문에 각기 고유한 특징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전문미술관으로 나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미술관 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미술조직 역시 기존대로 각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며 운영해갈 것인가 하는 선결조건이 해소돼야 그 다음의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통합 미술관장을 뽑을 경우 현 관장들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학예실장 등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명칭을 통합미술관장 직제를 만드는 등 직위와 관련한 문제 역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미술인들의 시각 역시 존재한다.

미술계에서 통합에 대한 의사가 공개적으로 타진된 것은 3월 5일 오후 열린 광주시립미술관의 올 첫 운영회의에서다. 미술계 밖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 미술계 안에서 토론회나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공동안을 마련. 광주시에 전달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후 어떻게 하지는 제안은 없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다.

현재 통합특별시 이후 제기되는 미술계 현안들은 앞서 언급했듯 미술관 기능과 영역 세분화 여부 및 방향성 정립, 직제, 특별시청 내 문화예술정책 관련 전문부서 신

설, 명칭, 직원 및 레지던시를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 및 위상 재정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 이후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의 관계 설정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쉽게 들러오는 안은 현대미술과 전통미술로 정체성을 정립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칭의 경우 시립과 도립을 뺀 광주미술관과 전남미술관으로 해야 한다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중부권에 광주미술관, 동부권에 전남미술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 남종화 등 수목의 주요 거점이 될 미술관을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술계 주요 관계자들은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의 의견보다 앞서 행정에서 먼저 개진됐던 바, 미술계가 행정보다 앞서 정책방향 등을 위시로 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으로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회, 집담회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체적 움직임이 실행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인사처리가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로 진용이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포착되고 있다.

중견 화가 A씨는 "광주와 전남미술관이 경쟁관계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본다. 광주 비엔날레를 제외하면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큰 문제는 각기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토론회 같은 자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자 B씨는 "광주시립미술관의 컨템포러리 방향 설정이나 전남도립의 근현대미술 지향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꼭 근대라고 해서 올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전남도립미술관 전경

선선한 저녁 물들이는 클래식 선율 '광장음악회'

해가 질 무렵 공원에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 사이로 클래식 전주가 흐른다. 산책하던 시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은 벤치에 앉는다. 공연장 입장권도, 정장 차림도 필요 없다. 클래식 음악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순간이다.

광주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무료 야외 클래식 공연 '광장음악회'의 풍경이다.

바리톤 정찬경이 이끄는 예술기업 꿈꾸는예술이 운영하는 광장음악회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시작됐다. 공연장은 극장이 아닌 공원과 광장이다. 전문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112회 공연을 이어오며 광주를 대표하는 생활밀착형 클래식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광장음악회는 단순히 야외 공연을 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탈리아와 독일, 미국 등에서 유학한 지역 음악인들에게

예술기업 꿈꾸는예술, 6일 오후 6시 30분 물빛호수공원 113회 무대에서 '가고파'·'그리운 금강산' 등 명곡 한 자리

는 꾸준히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무료로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연장 문턱을 낮추고 클래식을 일상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광장음악회는 테마가 있는 클래식 이야기라는 콘셉트로, 오페라 갈라콘서트와 음악극, 오케스트라 연주, 가곡, 민요, 대중가요를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무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길거리 클래식 공연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광장음악회 제113회 무대가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 광주 남구 노대동 물빛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부제는 '한국의 서정가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한국 서정가곡의 전성기까지 발표된 대표 가곡들을 한자리에 소개할 예정이다. 바리톤 정찬경은 예술대 대표·광장음악회 단장이 해설과 진행을 맡고 소프라노 이환희(호남신학대 객원교수,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 대표)·장마리아(호남신학대 객원교수, 울트클래식대표)·신은선(전남대·숙명여대 외래교수), 테너 신연석(광신대 외래교수), 메소소프라노 임지현, 피아니스트 이우정(꿈꾸는예술 음악감독)이 무대에 오른다

무대는 동요 메들리로 문을 연다. '반달'과 '따오기', '오빠생각', '풍당풍당',

'고기집이', '고향의 봄' 등 세대를 넘어 사랑 받아온 동요들을 다 함께 부르며 관객과 무대의 거리를 좁힌다.

이어 바리톤 정찬경이 한국 가곡의 대표작인 '가고파'와 '대관령'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신은선은 '학', '꽃구름 속 에', 메소소프라노 임지현은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진달래꽃'과 '못잊어'를 노래한다. 소프라노 장마리아는 '내 맘의 강물'과 '수선화'를 들려주며, 테너 신연석은 경기민요를 편곡한 '박연폭포'와 '그리움'으로 무대를 채운다.

소프라노 이환희는 '그리운 금강산', '고향'을 선보이며 공연의 감동을 이어간다. 마지막은 동요 '과수원길'을 함께 부르며 장식할 예정이다.

정찬경 꿈꾸는예술 대표는 "광장음악회는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며 함께 나누는 음악회"라면서 "단순한 가곡 음악회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ACC 예술극장에서 창작 연극 '돌아온다'를 선보인다.

밀도 높은 연기로 그려낸 희망의 순간들

'ACC 초이스' 두 번째 작품... 연극 '돌아온다' 내달 11일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여교사,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그 거친 말투 속에 외로움을 숨긴 욕망이 함몰. 저마다 상처와 기다림을 품은 사람들이 한 시골 식당에 모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무대에 오르는 연극 '돌아온다'는 그렇게 잊고 지냈던 마음을 다시 불러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ACC 예술극장에서 창작 연극 '돌아온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내외 우수 공연을 소개하는 2026년 'ACC 초이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다.

연극은 '돌아온다'라는 이름의 작은 시골 식당을 배경으로 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떠난 사람을 기다리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견디며, 끝내 자신 안의 상처와 마주한다.

화려한 사건 대신 사람의 감정과 침묵에 집중된 작품은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희망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이번 무대는 광주 초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작품은 2015년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2017년 영화로 제작돼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출연진도 눈길을 끈다. 배우 김수호와 강성진, 홍은희 등이 무대에 올라 밀도 높은 연기를 선보인다. 오랜 시간 연극과 방송을 오가며 대중과 만나는 배우들이 각자의 사연을 지닌 인물들을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연극 '돌아온다'는 단순회 과거를 회상하는 작품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마음들을 다룬 이야기"라면서 "관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며 위로와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7월 11일 오후 3시·7시, 12일 오후 2시·6시 등 총 4회 열린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황해운 기자 nab@gjdream.com



예술기업 꿈꾸는예술은 6일 오후 6시 30분 광주 남구 노대동 물빛호수공원에서 제113회 광장음악회를 갖는다.